

'전주·완주 협력' 경계 지역 정비사업 추진

공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가예산 125억원 확보... 공덕세천 정비로 주민 삶의 질 개선 기대

전주시 금상동과 완주군 소양면의 경계로,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공덕세천이 정비된다.

전주시는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2차)으로 추진 중인 '공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국가예산 125억 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상생협력을 통한 경계 지역 정비사업이라는 모범사례를 통해 이뤄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공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전주시 금상동과 완주군 소양면 경계에 흐르는 연장 2.5km구간의 공덕세천을 정비해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와 완주군은 내년부턴 향후 4년간 국비 125억 등 총사업비 250억을 투입

해 △제방정비 2.1km, △배수로정비 0.6km, △펌프시설 1개소 등 공덕지구 일원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내년 2월부터 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역을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덕지구 외에도 △풍수해생활권 1개소 △재해위험개선지구 3개소 등 총 6개 재해예방사업의 국비 58억을 확보한 상태로,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배회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그동안 시군경계지역에 위치하여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군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벤처·창업기업 성장 돕는 엔젤투자자 된다

출자 참여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공모 선정·모태펀드 22억원 유치

전주시가 창업 초기 자금난으로 힘겨워하는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엔젤투자자가 돼주기로 했다.

시는 출자에 참여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가 최근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공모에 선정돼 모태펀드 22억 원을 유치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공모선정으로 확보한 모태펀드 22억 원과 시에서 출자한 5억 원,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주에서 출자한 5억 원, 기타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원의 자금을 지역의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전북지역에 소재한 3년 이하,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창업·벤처기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3억 원 이하를 지원할 예정이다.

펀드는 운영사인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주에서 오는 11월 20일까지 조합 등록 및 결성을 완료하고,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발굴 및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펀드는 투자기간 4년

에 회수기간 4년으로 총 8년간 운용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펀드 선정으로 기술력과 성장성은 높으나 자금이 부족한 초기 창업·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전주시의 창업·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 추석맞이 신중양시장 장보기·상인들과 소통 나서

지역 농·수산물 구매 상인 애로사항 청취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25일 추석을 앞두고 신중양시장을 찾아 지역 농·수산물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이기동 의장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석 제수용품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행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가 25일 추석을 앞두고 신중양시장을 찾아 지역 농·수산물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구 살리기 동참 '환경사랑 한마당'

전주시, 탄소중립 통한 지구환경 소중함 체험

전주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구 살리기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2023년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완산생활체육공원에서 '지구살리기 동참'을 주제로 환경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탄소 중립을 통한 지구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2023년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시민들의 자원 선순환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투명 페트병과 병뚜껑, 깨끗한 비닐봉투를 기부받아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등 친환경 행사로 치

러졌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생분해성 화분에 모종 심기 △분리배출 농구 게임 △반딧불이와 호랑나비 생물전시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여기에 도심 속 빛나는 생명의 빛 반딧불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야간 탐방 행사 등 생생한 생태교육도 이뤄졌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과 어른 모두가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환경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관심과 관심이 높아졌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효자추모공원 봉안원 전경

전주시설공단, 추석 연휴 장사시설 특별운영

지난 설 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많은 성묘객들이 전주 공설 장사시설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추석 당일 교통통제에 나서기로 했다.

공단은 추석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시적으로 전주효자추모공원 내 이면도로를 일방통행 도로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취팔쭀로(전북혁신도시 방향)와 맞닿은 부분부터 유연로(서전주아울렛 방향)와 맞닿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총 1.2km 구간으로, 공취팔쭀로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쪽이 입구다.

공단은 자체 인력 20여 명에 더해 완산경찰서와 완산구청 등 유관기관들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아 이날 교통통제에 나설 예정이다. 주차 공간도 약 400면, 유연로 변 500면 등 총 900면을 추가로 확보했다.

공단은 추석 명절 기간 성묘객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추석맞이 특별운영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추석 당일 성묘객이 1만 5000명에 이르는 등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총 4만여 명의 성묘객이 전주효자추모공원을 찾을 것으로 공단은 내다봤다.

작년 추석 연휴에는 나흘간 하루 평균 9500여 명이 묘원을 다녀갔다. 화장시설인 전주승화원은 추석 당일 하루 휴장한다. 또 묘원 내 '조화(造花)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서다.

구대식 이사장은 "이번 추석에도 많은 성묘객들이 우리 장사시설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대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장수군

#다섯가지맛

NAVER 장수군청

#맛있다!

오! 아름다운 자여!

장수오미자

#오미자와인

축! 전주매일 창간

#장수물

#오미자주

www.장수물.com 장수물 MALL